

## 이웃들

조경란

소설가

명함을 새로 만들 때 양지는 ‘스페인어 전문 번역가’에서 망설이다가 ‘전문’이란 표현을 뺐다. 그러자 자신의 이름 밑에 스페인어 번역가라는 단출한 표현만 남았는데 사실 그건 직업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양지가 거의 백수에 가깝다고 알아차릴 거였다. 전 명함에는 스페인어 강사였지만 강사법이 바뀐 이후로 더는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를 얻지 못했다. 학위도 부족했던데다 벌써 마흔일곱 살이나 됐잖아. 조금은 자조적인 기분이 돼서 양지는 새 명함을 찍을 때 엄마 가게 상호를 덧붙이는 상상을 했다.

양지와 엄마가 삼십 년도 넘게 살았던 데를 떠나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건 십 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다. 엄마는 아는 분의 소개로 시장 한쪽의 빵튀기 집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재래시장 재정비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엄마는 아버지와 달리 체격만큼이나 책임감도 큰 사람이었다. 원래 일하던 분들이 엄마에게 가게와 기계를 팔고 고향으로 떠나자 엄마는 가게를 인근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도록 단장했다. 빵튀기 기계를 최신식으로 바꾸는 데만 해도 큰돈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마의 혜안이 맞았다. 봉어빵 장수가 줄어들어 귀해졌듯 빵튀기 장수도 줄어들어서 이제 먼 데서까지 소문을 듣고 묵은쌀이며 콩을 들고 손님들이 찾아왔다.

강사 자리를 잃고 나서 양지에게는 새로운 패턴이 생겼다. 집에서 걸어서 십오 분 거리인 가게로 나가 아홉 시에 문을 열고 빵튀기 기계를 예열시키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한 시에 오면 같이 점심을 먹고 두 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후 엄마가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저녁 여덟 시까지 양지는 혼자 있을 수 있었다. 나가야 할 데도 오라는 데도 없는 사람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다. 공저로 번

역서가 한 권 나온 적은 있어도 단독 번역자로 일거리를 맡은 건 행운에 가까운 일이었다. 동네 지명이 행운동이었다. 이런 행운이 더 자주 생긴다면 책상 앞에서 살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고 양지는 내심 기대했다. 그 오후와 저녁 시간 동안 양지는 성실한 사무원처럼 번역에만 매달리고 싶었다.

아직 하지도 이주나 더 남은 수요일에 이미 이상 기온으로 31도까지 올랐다. 가게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티셔츠가 땀범벅이 되었다. 이제 샤워를 하고 책상으로 돌아가 본업을 시작해야지. 양지는 날마다 계획을 세웠다. 매일 엇비슷한 계획이긴 해도 결심은 날마다 필요했다. 골목은 경사가 좀 심한 편이었다. 바로 이웃집과도 거의 반 층 정도 차이가 날 만큼. 이층 양지 집으로 올라가는 현관에서 맞붙어 있다시피 한 아랫집 옥상이 바로 내다보였다. 엄마와는 안면을 트고 지내는 듯했지만 양지는 그녀와 제대로 인사를 나눠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지 몰랐다. 아랫집 주인은 제 집 옥상에도 무관심한 사람이었으니까.

현관문을 열다가 양지는 뭐지? 하며 아랫집 옥상 쪽으로 몸을 돌렸다. 웅크리고 있어서 말아 놓은 검은 털 뭉치처럼 보이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땡볕에 누워 있었다. 익숙한 동네 고양이들이 그래도 이럴 땐 머리를 치켜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현관문 소리에도 검은 고양이는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

덕진은 윗집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체로 낮 두 시 십오 분 경이면 뽁뽁한 대문을 열쇠로 힘들게 열었다가 닫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에 기름칠하거나 손을 봐야 하는 데 모녀 모두 그런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덕진은 지하로 이어지는 골목 밖 셔터에 당분간 가게를 쉰다는 안내문을 붙여두었지만 작업 테이블의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달 전에 친정엄마 기일이 있었다. 형제들은 많아도 아무도 엄마의 기일을 기억하지도 밥 한 그릇 올려두는 자식들도 없었다. 덕진을 제외하곤. 작은 나무 상과 제기들을 꺼내느라 먼지가 쌓인 냉장고 위로 손을 뻗을 때 한꺼번에 제기 상자들, 나무 상이 떨어졌다. 덕진의 오른쪽 발등으로.

발등뼈에 금이 갔다. 김스를 욕 주나 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부터 덕진은 양쪽에 목발을 짚은 채 방과 거실과 부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골목의 경사 때문에 지하로 보이는 옷 수선 가게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도 휘어지고 낙차가 심한 옥상 철제 계단은 엄두를 내지 못해 빨래를 실내에서 말려야 했지만. 경수는 출근할 때마다 유니폼인 나일론 조끼에서 쿼쿼한 냄새가 나

는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퇴근할 땐 참외나 하지 감자(아직 하지도 아닌데 하지 감자가 나온다는 게 이상했지만), 양념한 고기 등을 사 오곤 했다. 제 엄마가 시장을 가지 못하게 된 데다 온라인으로 먹거리를 사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한 종교 집단에 빠져 집을 나간 후부터 덕진은 지하를 개조해서 재봉틀을 갖다 놓고 밖에서 ‘행운 수선집’이란 간판을 달았다. 원래도 거기서 편물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았다. 하다 보니 옷 수선일은 두 가지가 중요했다. 수선 솜씨와 단골손님을 놓치지 않는 기술. 동네 사람이라면 더 그랬다. 경수가 취업반일 때였고 대학을 포기한 아들에게 생활비 부담까지 떠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수선할 옷들, 수백 장의 편물 속에서 하루가 갔고 덕진은 큰 불만이 없었다. 남편이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경수는 덕진에게 집 계약서와 도장을 압수한 뒤 한 번만 더 아버지를 집에 들이면 자신을 평생 못 보게 될 거라고 선언했고, 덕진이 아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고야 말 거였다.

덕진은 특히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려고 했다. 옆집만은 약간 예외였는데 자신과 나이가 대가 엇비슷해 보이는 딸 때문일지 몰랐다. 집이 워낙 붙어 있다시피 해서 여러모로 서먹하게 지내지 않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칠십이 넘은 엄마라는 사람은 차갑고 좀 도도해 보이는 딸과 달리 목소리도 크고 시원시원한 데다 수선이 필요한 옷가지들을 갖고 찾아와 수다를 떨어 다행이었다. 딸이 술에 취해 골목에서 꾸그려 앉은 채 잠든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김스한 지 이주 뒤쯤인가 오전 시간에 “애기 엄마 어디 아파요?”라며,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수가 출근할 때 살짝만 달고 나간 대문을 밀고 들어온 사람도 옆집 아주머니였다. 경수가 스무 살인데 동네 나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신을 애기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덕진은 조금은 웃기기도 했다. 아주머니는 수선 가게 셔터가 계속 내려져 있어 걱정돼 왔다며 딱 한 봉지를 내려놓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던 덕진은 아주머니를 안으로 들였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아주머니의 딸 이름과 나이를 덕진은 그날 슬쩍 물어보았다. 그 나이에 머리에 장식이 달린 실핀을 꽂고 다니다니. 덕진은 자신보다 서너 살 아래인 윗집 딸이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았다.

\*

양지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십 도가 넘었는데 아랫집 옥상의 길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엄마 가게로 출근할 때도 고양이는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다. 돌아와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딘가를 다쳤다가 앓다가 죽은 게 분명했다.

오늘 오후부터는 뭔가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았다. 엄마 말에 의하면 아랫집 여자가 김스를 풀려면 일주일도 더 남았다. 그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 길고양이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뿐일 텐데, 양지는 지난번처럼 엄마를 시켜 그 집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에 그랬을 때 여자가 좀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엄마에게 이런 소릴 했다고 했다. 따님이 참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인가 봐요.

두어 달 전에 사흘 연속으로 퍼붓듯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다. 아랫집 여자의 남편이 집을 나갈 삼 년 전부터 집을 손보는 사람도 옥상 바닥에 방수 처리를 다시 하거나 배수구를 살피는 사람이 없어 보였다. 아랫집 옥상 바닥 전체에 고인 물이 일주일도 지나도록 그대로였다. 양지는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보이는 아랫집 옥상이 신경 쓰였다. 배수구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데, 아무도 옥상에 올라와 보는 사람이 없었다. 삼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집 남편이 가끔 옥상에 올라와 이것저것 살피고 담배도 피우다 내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양지는 엄마에게 아랫집 여자에게 옥상에 물이 고여 있다고 알리라고 시켰다. 아랫집에 다녀온 엄마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원래 그 집을 때부터 배수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두래, 시간 지나면 물이 빠지지 않겠냐고.

양지는 옥상에 고인 물이 집 전체로 스며들다 마침내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

내 집 옥상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고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양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랫집 여자는 양지에게 그런 이웃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고양이라니.

하지만 어떤 좋은 이웃도 있었다.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언젠가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간신히 골목을 올라가는 자신을 양지 집 대문 안으로 안전하게 밀어 넣어 준 사람도 있었다. 이 골목에 사는 사람일 텐데 양지는 그날에 대한 기억이 그뿐이었고 이제부터 아버지 기일에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는 일은 그만둬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아버지 생각이 또 났다.

아버지는 한강 하구에서 어부 일을 했다. 삼십 년 동안 아버지는 어부라는 직업에 자신을 종사시켰지만 그 일엔 투신한 시신을 때때로 발견해 경찰에 넘겨야 하는 의무도 포함돼 있었다. 아버지는 종종 부력에 의해 물에 떠 오른, 부패가 진행된 사체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아침 조업을 하다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십 대 청년의 시신을 발견한 게 마지막이었고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었다. 죽은 사람을 보는 일은 고통이라고 했던 아버지는 어쩌서인가 자신의 삶도 버렸다. 그게 십 년 전이었다. 아버지 기일마다 양지는 엄마를 피해 밖에 나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곤 했다.

저 길고양이는 어쩌다 죽은 것일까.

오후 여섯 시. 양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닐장갑과 큰 봉지 하나를 주머니에 챙

기곤 현관문을 열었다. 골목에서 음식 냄새들이 풍겼고 바로 코앞 아랫집 여자의 옥상에서는 죽은 길고양이 사체가 방치돼 있었다. 여자는 자신의 옥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너무 늦다. 양지는 계단 난간의 폭이 좁은 시멘트 돌출부를 딛고 허락 없이 이웃의 옥상 난간을 훌쩍 뛰어넘었다.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에는 되레 기온도 습도도 내려가서 부채 바람으로도 견딜 만했다. 요즘 소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덕진은 한쪽에 목발을 짚고, 한 손에는 형겅 가방을 짊 채 골목길을 천천히 내디디며 걸음을 옮겼다. 덕진은 농사를 지었던 부모 때문인지 절기에 민감했고 6월에는 망종과 하지와 단오를 보내면 한 달이, 이달 7월은 소서 지나면 초복과 중복, 대서를 보내면 한 달을 사는 거라고 여기곤 했다. 자신의 삶은 그런 하루하루와 이 동네 근처에 있었다. 아직 시장까지 가긴 무리고 골목 아래 편의점까지는 그럭저럭 오갈 만했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달걀과 우윳값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렸다.

골목 끝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내리막길에서 덕진은 목발을 더 신중히, 마치 땅이 안전한지 두드리기라도 하듯 조심조심 짚었다. 반대쪽에서 뒷집 딸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이름이 양지라고 했다. 그녀 쪽에서 먼저 이제 걸어 다니셔도 돼요? 라고 아는 척을 했다. 덕진은 자신의 몸골이 어떻게 보일지 뻔해 고개를 수그리듯 끄덕거렸다. 뒷집 딸은 일이 너무 안 돼 주민센터 앞 놀이터에 좀 앉았다 오는 길이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래서 덕진도 지난봄에 옥상 일 신경 쓰이게 해 미안했다고 말해버렸다. 덕진이 빨랫줄에 빨래 널 때마다 줄을 닦을 마른걸레 위에 버리기 아까운 검정 니트 긴바지를 집게로 같이 걸쳐두었는데 아주머니가 찾아와 망설이는 어조로 말을 전했다. 딸애가 가끔 밤에 보면 그게 길게 늘어진 사람 형체같이 보여 깜짝깜짝 놀란다고. 덕진은 어쩐지 기분이 상해 이틀 후쯤에서야 그것들을 치웠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지 여자가 네에, 하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뭐든 잇길 잘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목발을 고쳐 짚고 여자와 엇갈려 헤어지기 전에 덕진은 이렇게 물었다. 저기, 관찮으신 거죠? 네? 아니 그냥요. 덕진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마저 길을 내려갔다. 여름이 시작돼 그런지 덕진의 눈에는 뒷집 딸이 좀 아위어 보였다. 덕진은 그녀의 체중을 기억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한쪽으로 붙잡고 가방을 뒤적여 열쇠를 찾아 뒷집 대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낼 때까지 덕진에게 완전히 맡기고 내맡기고 있던. 왜 그러셨어요, 왜, 왜, 왜. 여자의 술주정도 아직 기억하는데.

덕진은 왼쪽 발에 체중을 싣고 오른손으로 경수의 나일론 조끼 두 장이 든 가벼운 세탁 바구니

니를 들고 집 뒤를 돌아 철제 난간을 한 칸씩 밟곤 옥상으로 올라갔다. 목발이 없이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데, 내 집 옥상에 올라가 햇빛 속에 빨래를 낀다는 사실 때문에 순간 행복했다. 지난 번 이른 장마로 옥상 바닥의 방수 칠이 더 벗겨졌지만 누가 비질까지 한 것처럼 깨끗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스티로폼 상자에 풋고추 모종이며 상추, 가지, 대파, 방울토마토를 심기도 했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덕진은 옥상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윗집 모녀가 없을 때면 바닥에 두 다리를 펴고 앉아 골목을 내다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적은 없었지만 숲으로 피크닉을 가 나무 밑에 자리 잡고 앉은 기분으로. 일 미터도 안 되는 거리라 윗집 모녀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부터는 마음 놓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옥상에 서자 덕진은 그래도 자신에게 이 집은 남았다는 큰 안도감이 들었다. 윗집 모녀가 빵튀기 가게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었다. 아주머니가 떡을 갖고 자신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덕진은 시장에 가는 대로 모녀의 가게에 들를 작정이었다. 덕진은 쌀 튀밥보단 예전에 엄마가 즐겨 먹었던 검은콩을 튀긴 걸 더 좋아했다. 기계를 한번 돌리는 데 팔천 원, 재료는 쌀이든 콩이든 무조건 2kg이 기준이었다. 국산 서리태 2kg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덕진은 바삭 마른 옥상 난간에 주춤거리며 앉았다. 왼쪽 다리부터,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 쪽 찼다. 바닥에 뭔가 작고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덕진은 팔을 뻗어 그것을 주웠다. 새끼손톱만 한 나비 모양의 큐빅이 끝에 붙어 있는 실핀이었다. 윗집 딸의 머리핀이 왜 여기 떨어져 있는 걸까? 덕진은 실핀을 가볍게 머리에 꽂곤 자신이 보지 못한 무엇이 또 있는지 반짝이는 눈으로 옥상을 둘러보았다. <끝>